

사진필름 선구자 Agfa Photo 파산

디지털사진 적응 못하고 140년만에 문닫아 ... 2001년 이후 매출 급감

세계적인 독일 필름 공급기업 Agfa Photo가 디지털 사진이라는 첨단기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140년 만에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ARD방송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Agfa Photo는 5월27일 쾰른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Agfa는 전 세계 사업장 종업원들이 갑작스러운 발표에 놀라지 않도록 5월25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이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서부 레버쿠젠에 본사를 둔 아그파포토는 독일 5개 공장 등에 종업원 1800여명이 있으며, 한국 아그파 포토코리아 등 현지법인과 판매망까지 합한 전 세계 종업원 수는 모두 2400명에 달한다.

아그파포토 파산은 디지털 사진기 보급으로 전통적인 사진필름과 인화지 등 매출이 격감했기 때문이다.

2001년 전 세계 필름 판매량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후 디지털 사진 바람에 밀려 매출이 급감했다.

아그파는 1889년 흑백필름을 개발했으며, 1897년 아그파라는 상표를 공식 등록했다.

<화학저널 2005/05/30>